

한국화인케미칼, TDI 유출사고 은폐!

성분분석 결과 TDA로 추정 ... 환경-시민단체 “여수산단 떠나라” 비난

여수산업단지의 한국화인케미칼 공장에서 배출된 유독성 물질이 빗물에 섞여 차량 페인트를 변색시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003년 8월30일 오전 8-11시 내린 빗물에 여수단지 한국화인케미칼 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이 섞여 공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100여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내린 가랑비로 주변 차량에 노란색 얼룩이 생겼는데 차량 표면에 묻어 있던 이물질들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독성이 강한 톨루엔 등으로 판명돼 수사에 나섰다.

사고 원인물질은 TDI(Toluene Diisocyanate)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원료인 TDA(Toluenediamine)로 추정되는데 현재 여수산업단지에서 TDI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BASF와 한국화인케미칼 2곳 뿐이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해당 물질이 한국화인케미칼 제품과 동일 성분이라는 통보에 따라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경찰은 일단 한국화인케미칼이 정기보수로 인한 가동중단기간 동안 유해물질을 공중에 분사시켜 비에 섞이도록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국화인케미칼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 유무를 떠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톨루엔 등은 환경부 지정 특정수질 감시물질로 오존 등 광화학 스모그 발생과 발암, 오존파괴 등의 원인물질로도 알려져 주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평소 각종 공해로 시달리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환경 안전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0월2일 유독물 배출 공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공장에서 배출된 유독물질로 오염된 비가 차량의 도색을 변색케 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것은 심각한 환경사고”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톨루엔으로 추정되는 해당 물질은 암을 유발하고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독극물인데도 한국화인케미칼은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노동자와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는 커녕 1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화인케미칼은 1994년 9월8일 노후 파이프를 통해 톨루엔과 포스겐 등의 유독가스가 누출돼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어 당시 생산과장이던 정 모(53)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톨루엔 등을 누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3/10/06>